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호	1547
-----------	------

2020.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0. 5. 25. 임만균 의원 발의 (2020. 5. 29.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도 불구하고, 서울건축문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이하 ‘총감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임만균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p><u>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총감독의 선임을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 것 외에,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전문가 조례’)가 개정¹⁾됨에 따라 ‘2020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상 업무범위, 선정방법, 대가지급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음.
-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정책·사업 등의 ‘조정·기획 등’에서 ‘자문’만으로 축소하고, 위촉방법은 공개공고를 통한 선정으로 한정하며, 대가는 자문회수에 따른 자문료로만 지급토록 하였음²⁾.

1) 서울특별시조례 제7291호

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를 위하여 역할과 위촉 공고방식, 자문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특혜성 비전문가 인사 위촉을 방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민간전문가 운영방식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1인 전문가 의견의 독점적 반영을 지양하고 다수 전문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됨.

<민간전문가 조례, '19.9.26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역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 수행
위촉 방법	공개공고 원칙 (예외적으로 전문기관 추천 또는 혁신적 제안자 위촉 가능)	공개공고 (예외 없음)
대가 지급	업무 범위,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할 수 있음	자문 회수에 다른 자문료로만 지급이 가능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특별자문은 150%까지 가능)

- 2020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은 지난 3월에 행사용역사 선정과 함께 선임되었으며, 그 역할은 행사를 총괄·기획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전문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공모방식으로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³⁾,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선임할 예정임.

<2019-2020 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안) 비교>

구 분	2019년	2020년
운영기간	1월~12월	3월~11월
위촉 방법	복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위촉	행사용역사와 동시 선정 (총감독 및 행사기획안을 포함)
보수지급 근거	민간전문가 보수지침 (30백만원)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⁴⁾ (30백만원)

- 참고로 건축문화제 총감독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건축·전

3) 건축문화 관련 기관·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행사용역 공고 시 4명의 후보를 공개면서 용역사와 후보자가 한 팀을 이루어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4) 『서울특별시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시행계획(2013. 7. 26.)』 상 축제 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 상한액 (非상근 시)

시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사를 총괄·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총감독제 시행 전후의 행사 운영 조직 비교>

<p>2010-2014 운영조직(집행위원회)</p>	<p>2014년 이후 운영조직(총감독제도 도입)</p>

그 이전에는 ‘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라는 전문가 자문방식이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전시 기획 기능 미약, 불분명한 행사성격과 전문가의 적극성 부족 등 미비점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총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음⁵⁾을 감안할 때,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를 따를 경우 이같은 과거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다만 관계부서 협의 시 민간전문가 조례 주관부서(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위 개정조례안은 “총감독의 업무 범위,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축제예산/준비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5백만원
3억원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5) 「서울 건축문화제의 선진화 방향 연구」, 서울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건축기획과, 2018.9.10.)

-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조례⁶⁾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는 가운데,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총감독의 전문분야,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총괄·기획하는 총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6)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붙임 1】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9. 26.>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9. 9. 26.>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반자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전문개정 2019. 9. 26.]

【붙임 2】 건축문화제 총감독 설치 근거 및 추진 경과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시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시행계획 지침(문화정책과)

추진경과

- 2014년 ‘총감독제’ 시행, 제6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 2015년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 국내·외 공동 총감독 위촉
- 2016년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충기)
- 2017년, 2018년 제9회,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기옥)
- 2019년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천의영)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19. 9. 26.)
- 서울시 건축문화제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총감독 임무

- 건축문화제 기본 구상 및 프로그램 기획·연출 업무 총괄
- 사무국(대행사)을 총괄하여 세부계획 수립
- 기타 프로그램 관련 회의 주관, 서울시 협의 및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등

근무형태 : 비상근

- 주 1일 이상 건축문화제 사무국에 출근하여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
- 행사 개최 4개월 전부터 주 2일, 2개월 전부터 주 3일 이상 근무